

# 반도체 화학제품 수도권 신증설 허용

정부, 8개 첨단업종 2006년까지 한시 허용 ... LG계열 4사에 대덕전자

수도권에서 10년만에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이루어진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월4일 국회에서 수도권발전대책 고위 당정간담회를 열어 2006년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LCD(액정표시장치)모니터 등 8개 첨단업종에 한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에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기는 1994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은 ▲감광제 프로세스 케미컬 등 화학제품 ▲LCD모니터 등 컴퓨터 입출력장치와 주변기기 ▲파워모듈 등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 장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인쇄회로기판 ▲포토마스크 등 기타 전자부품 ▲LCD TV 및 OLED 등 방송수신기와 영상·음향기기 ▲프리즘시트 편광판 등 광섬유 및 광학요소 등이다.

정부 조치로 이미 추진중인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 곳은 2006년 말까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단지에 입주하는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마이크론, 대덕전자 등 5사이다.

LG계열 4사는 정부 결정으로 경기도 파주에 총 1조8000억원을 투자해 LCD 원료와 부품, 완제품까지를 생산할 수 있는 LCD 일관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LG 계열사와 대덕전자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다른 대기업이 수도권에 신증설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면 어떤 원칙에 의해 어떻게 결정할지 여부에 따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LG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문제가 표류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PDP 모듈 부문 투자를 보류하고 전체 투자규모를 당초의 절반 수준인 1조8000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압박을 가해왔다.

산자부는 LG의 파주 LCD 관련공장 신증설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2000-3000명 수준에 불과하고 지방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저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저널 2005/11/07>